

상록탑

1+1=3, 융합 교육이 만들어 낼 제3의 가능성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개념이 대두되면서 ‘융합형 인재’라는 키워드가 주목받게 됐다. 현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인재, 나아가서 창조적인 융합을 이끌어내는 인재라는 것이다. 이는 융합 교육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됐다.

그렇다면 융합 교육이란 무엇일까. ‘융합’의 뜻은 서로 다른 분야가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특성을 가진 분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 단어가 교육적 방법론과 결부된 ‘융합 교육’은 두 개 이상의 학문 분야를 서로 연계하고 통합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말했듯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변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도 융합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부각돼왔다.

그러나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의 강력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대학가는 여전히 ‘융합 교육’의 흐름에 쉽사리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학내 융합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단순하다. 대학 측



한재영
사회문화부부장

이 융합교육에 대한 시도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측이 시도를 기피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대학 내에서 융합 교육의 개념 및 패러다임이 정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융합 교육이 이뤄진다면 어떤 범위 내에서 실현돼야 하는지, 개설된 수업은 어느 학과에 편입시켜야 하는지 등 실현 방안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의 내려진 바가 없다. 개념이나 패러다임이라는 기초 전제가 불분명하니 융합 교육이 이뤄졌을 때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은 대학 입장에서 큰 위험 요소다.

둘째는 재정 문제다. 사실상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융합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

현한 학과들의 사례가 가능했던 이유는 과감한 시도를 뒷받침해줬던 대학 내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다수 대학은 미국의 사례와 다르다. 한정적인 재정을 불투명한 융합 교육에 쏟는 것은 대학 입장으로서 시도하기 어려운 모험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융합 교육에 대한 시도를 이어나가야 한다. 융합 교육 시도로 인한 어려움이 무의미한 통증을 아닌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교육 대안으로 떠오른 ‘융합 교육’은, 단순히 한시 한철의 유행이 아닌 앞으로 변화될 패러다임과 맞닿아 있다. 전통적 교육방식만을 고수하는 대학이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를 기꺼이 끌어안은 대학과 점차 격차가 벌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당장은 아플지라도 우리나라 대학이 깨지고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융합 교육으로의 변화를 꾀해야 할 당위성은 여기 있다. 대학 내에서 융합 교육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는지,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학생 칼럼

4년의 정기후원이 내게 남긴 것

2014.10~2018.09내 인생 첫 1대1 아동결연 종료.

평소와 다른 어떤 어느 아침, 1대1 아동결연 중인 필리핀 친구가 사는 마을이 자립 가능하게 되어 후원 운영이 종료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자립 가능하게 되어 후원 종료라니 참 기쁘면서도 뭔가 허탈했다. 몇 년간 정기후원을 하면서 무더진 탓일까. 언제까지고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후원이 이 메시지로 하나로 종료된다니, 허무했다.

그동안 매월 초가 되면 나의 통장에서 3만원이 빠져나가고 뜨던 알림메세지. 그 알림이 뜨면 나의 통장잔고를 떠올리고 살짝 맘이 쓰렸다. 이내 익숙하게 알림을 밀어 없애곤 하였다. ‘이번 달도 후원금이 잘 들어갔구나,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친구는 1년에 한두 번씩 내게 손수 꾸민 엽서를 보내왔다. 사실 내가 그 친구에게 뭘 해준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미루고 미루다가 자필편지 한번 제대로 못 보내고 간편한 온라인 편지 시스템을 이용해 보냈던 게 다인데, 그런 내가 이 친구의 정성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싶어 친구의 편지를 받아들 때면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언제 헤어질지 몰랐기에 더 나태했다. 그저 매월 통장의 알림으로 한 번씩 떠올렸던



최승은
정치외교15

필리핀의 내 친구. 3만원은 정말 이상한 돈이다. 작은 것 같기도 한데 또 학생의 신분으로는 크게 느껴질 때도 있는 애매한 액수. 1만원도 5만원도 아닌 3만원. 3만원은 그동안 내게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고 나는 이 3만원으로 세상을 배웠다. 지금 생각해보니 수업비가 아니었을까.

특히 3만원이 빠져나갈 때마다 내가 하는 후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동안 많은 봉사활동을 일삼처럼 해왔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나누는 게 좋았고, 봉사하면서 늘 겸손하게 사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돈으로 하는 후원이 봉사활동의 의미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내가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봉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돈을 나누는 기부는 어쩌면 더 어려운 것 이라고. 배가 고프게 와서 청소를 해주는 것 보다 영양 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도 중요하다고 말이다.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세상에서 돈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저생활수준(subsistence level)’이라고 말하는 만큼의 경제력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랬다. 나도 무엇을 사려면 이천원이라도 주머니에 있어야 하니까. 후원하며 오히려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배웠다.

알드레 툴리아오. 잊지 못할 이름. 2003년 9월생. 네 사진을 처음 받았을 때 앵그리버드 티를 입고 환하게 웃던 어린이였는데 마지막 성장보고서에는 어엿한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기분이 이상하다. 나도 내 성장보고서를 만들어 사진과 함께 자주 보내줄걸 그랬나 보다. 헤어질 때가 되어서야 깨달은 바보 같은 인간. 친구야, 끝내 생일이구나, 생일 축하한다.

마지막이니 더 쓸쓸러운 말을 뻔뻔하게 적을 수 있겠다. 어제 네게 긴 편지를 써서 보냈어. 너는 나의 사진을 처음 볼 텐데 너도 나를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 친구야 이제 안녕.

마지막 편지를 부치며 나는 이 친구와 언젠가 우연히 마주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풍성한 가을과 같이 그 친구가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유난히 달이 빛나는 밤이다.

모양도 다양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은 20세기 사회에서 실용성은 매우 중요했으므로 실용적인 단추가 많았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 의복 또한 신체를 드러내는 대신 실용적이고 단순한 방향으로 변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단추는 실루엣을 살리거나 옷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고, 옷에서 개성과 예술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았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디자이너 코코 샤넬, 엘자 스키아파렐리도 단추에 실용성을 부여하면서 예술가적 사상과 느낌을 담았다.

작은 사물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의 흐름, 역사적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은 참 흥미로운 일이다. 사물에 대한 시선 전환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러한 시선 전환으로 과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술, 학문 등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심히 사용하는 어떠한 물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 변해왔는지 생각해본다면, 우리를 둘러싼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김민주(사회17)

사설

개선 목소리 내려는 학생이 두려움 느끼지 않아야

한국음악과(한음과)에서 무리한 연습 및 연주 일정, 교수들의 언어폭력, 음악캠프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학생들이 지난 17일 학관, 학문관 등에 부착된 대자보를 시작으로 관련 해결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총 4차례 간담회와, 감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달 말 한음과 학장은 자리를 내놓기도 했다.

예술계에서는 후배나 선배 간, 제자와 스승 간 권력 관계가 불평등하다. 이는 예술대학에서 문제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공포와 불안이라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문제를 고발한 한음과 학생들은 교수에게 개인지도를 받는 수업을 듣고 있어 개인이 특정될 경우 성적이나 취업에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중이다. 때문에 대자보에서도 알 수 있듯 이런 상황이 수년간 지속됐음에도 이जे야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한음과 한 학년 정원은 42명이다. 이론 반과 실기 반으로 갈라지면 함께 지내는 집단은 더욱 작아진다. 작은 집단 내에서 공론화는 누가 시작했는지, 누가 함께 했는지 예측하기 쉬워 학생들의 불안을 가중한다. 한음과에서는 전공 악기의 모습만으로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실제 학보에 의

견을 준 한 한음과 학생도 게재된 내용을 지우지 않으면 교수가 계속 의견 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 같으며 삭제 요청하기도 했다. 한음과 외에도 음악대학 미투(#MeToo) 사건 때나, 조형예술대학의 부족한 시설을 고발할 때 임명임에도 학생들은 자신이 특정돼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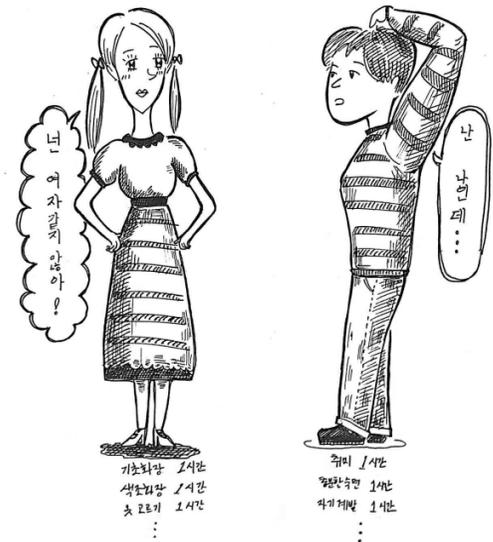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학생들이 항의하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다. 이 문제는 사회에 나가서도 이어진다. 최근 문화·예술계에도 미투 사건이 있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에서 실시한 ‘예술 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 조사’ 결과를 보면 성추행을 당해도 말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로 가해자를 계속 만나야 하니까, 혹은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답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대학은 사회와 다르게 불의에 맞서는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대학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여러 교양 교육을 진행하는 공간이다. 사회의 악습이 대학 내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당장 이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지금, 개선을 위해 목소리는 내는 학생들이 불안에 떨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만평

우아현 만평기자 wah97@ewhain.net



금주의 책



(쓰면서도 잘 모르는 생활 속) 우리말 나들이

- MBC 아나운서국 우리말팀 엮음. 서울: 시대의창, 2018.

이 책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쓰면서도 늘 헛갈리는 우리말 표현과 다시 살펴 쓰고 싶은 고운 우리말들이 쉬운 뜻풀이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왜곡·훼손되거나 잊혀져가는 우리말이 점점 늘어가면서 문화의 후퇴를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은 없는지, 그 말로 인해 타인이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언어생활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이화인에게 추천합니다. 지난주 임동을 거치며 ‘비거스럼이’를 하느라고 바람이 제법 차가웠습니다. 추운 날씨만큼 단풍이 질어가는 요즘 지독한 고별에 걸리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잡도리’ 하는 것이 좋겠지요? 물론 공부도 ‘지머리’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중앙도서관-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책 / 4층 일반자료실 411.125 우329마 2018]

1010~1108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Mathematics for economists	Simon, Carl P.	Norton	1994
2	내 이름은 빨강: 오르한 파묵 장편소설	Pamuk, Orhan	민음사	2004
3	다른 방식으로 보기	Berger, John	열화당	2012
4	오디푸스 왕 풀러 읽기: 텍스트와 퍼포먼스	Sophocles	새문사	2009
5	오직 두 사람: 김영하 소설	김영하	문학동네	2017
6	어쿠스틱 라이프	난다	애니북스	2011-
7	초한지: 이문열의 史記 이야기	이문열	민음사	2008
8	서울대한국어 [개정판]	서울대학교 . 언어교육원	문진미디어 · 투판즈.	2012-
9	太白山脈: 趙廷來 大河小說 제3판	조정래	해냄	2001
10	(새로 만든) 만나라 이웃나라. 1. 네덜란드	이원복	김영사	2012

여론광장

사회를 담은 단추

오늘날 단추는 의복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때로는 옷을 여미는 데에, 때로는 옷을 장식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된다. 과거에는 어땠을까? 과거 단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 계기가 있었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는 이런 대사가 등장한다. 주인공 남숙희(배우 김태리)는 주인공 히데코(배우 김민희)의 드레스 등에 달린 작고 많은 단추를 보면서 이런 독백 대사를 한다. ‘이 많은 단추들은 시녀들 좋으라고 달렸지.’

영화에서 지나가듯 나온 이 독백 대사로 단추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의복을 입는 당사자의 시선으로만 단추를 보았다면 의복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시선으로 보게 된 것이다.

영화 속 대사를 계기로 영화 속의 의복과 가까운 서양, 유럽 귀족의 의복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국립 중앙 박물관에서 전시했던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라는 전

시에 다녀왔다. 전시에서는 시대별로 단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단추가 시대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단추는 당시 공급의 수월함이나 신분에 따라 철, 보석, 자개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부유한 계층일수록 희소하고 비싼 재료를 단추에 활용했다. 18세기 중세 유럽에서의 단추는 예의범절과 장식, 신분을 나타냈고 영화 〈아가씨〉에서처럼 사실상 장식의 역할을 하는 단추가 많았다. 오늘날 격식 있는 자리에 단추가 있는 양복 와이셔츠를 입는 문화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있다. 또, 19세기에는 산업화와 도시화, 제국주의, 나폴레옹 시기를 거치면서 단추들은 군복과 같은 제복의 상징으로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격화, 기계화된 산업화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20세기에는 단추가 대칭에서 벗어나 비대칭에 사선으로 배치됐고,